

□ 교역 조건 악화, 소비 침체 부추긴다

1. 교역 조건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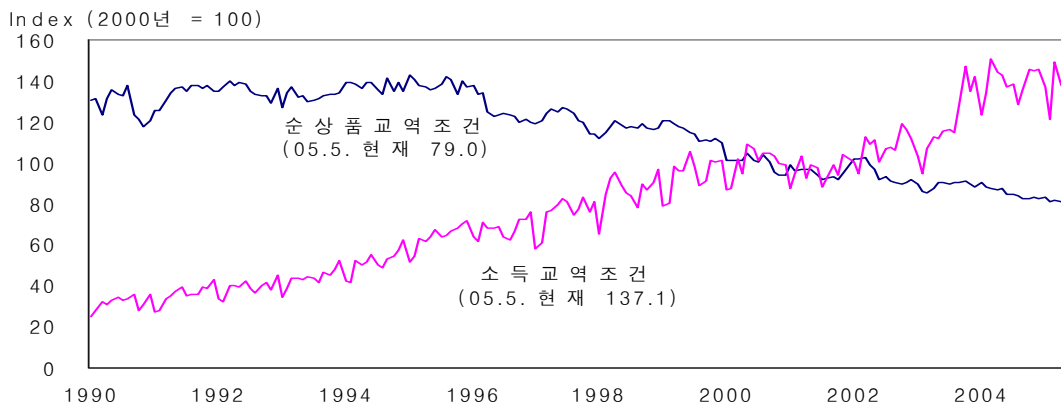
○ (교역조건 악화 지속)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순상품교역조건지수(수출품 1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)가 1990년 1월 130.3에서 2005년 5월 현재 79.0까지 하락

-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은 수입단가의 상승폭이 수출단가의 상승폭보다 커서 1단위 수출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임
  - 수출단가는 2004년 7.5%, 2005년 1/4분기 0.6% 상승하였으나 수입단가는 2004년 12.2%, 2005년 1/4분기 1.2% 상승 (이상 전년동기 대비)
- 참고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 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여, 같은 기간 25.0에서 137.1까지 상승함
  - 수출물량은 2004년 22.5%, 2005년 1/4분기 8.6% 증가하였으나 수입물량은 2004년 12.0%, 2005년 1/4분기 2.7% 증가 (이상 전년동기 대비)

< 참고 > 교역조건의 의미와 교역조건지수의 종류

- 교역조건의 의미 :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로, 상품수출입이 가격상 얼마나 유리해 졌는지, 혹은 불리해 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
- 교역지수의 종류 : 교역조건은 지수(index)로 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발표하고 있음
  - 순상품교역조건지수 : 수출입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,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 비율로 계산 (수출단가지수/수입단가지수×100) 되며 지수가 올라가면 1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함을 의미함
  - 소득교역조건지수 :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 (순상품교역조건지수×수출물량지수)

< 우리나라 교역조건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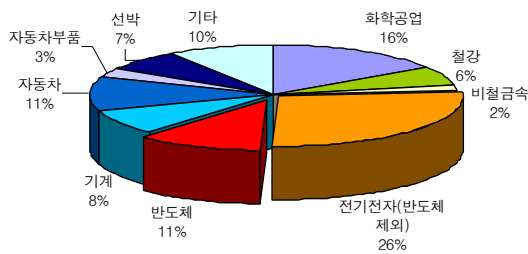
## 2. 교역 조건 악화의 원인

○ (원인) 특정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, 에너지·자원의 높은 대외 의존성, 수입상품의 고급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수출 물량에 의존하는 무역구조 심화

- 특정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 :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·전자제품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 하락이 수출단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

- 2005년 들어 7월 20일 까지 전체 수출액 중 전기·전자 제품(반도체 제외)이 26%, 반도체는 11%를 차지 (잠정치)
- 한편 전기·전자 수출단가지수는 2000년 100에서 2005년 1/4분기에 55.2로 하락하였으며, 반도체는 동기간 100에서 27.3까지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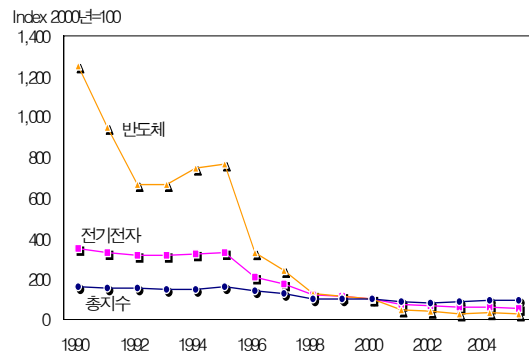
< 품목별 수출액 비중 >



자료 : 산업자원부

주 : 2005년 1월~7월 20일 누적 기준 (잠정치)

< 수출단가지수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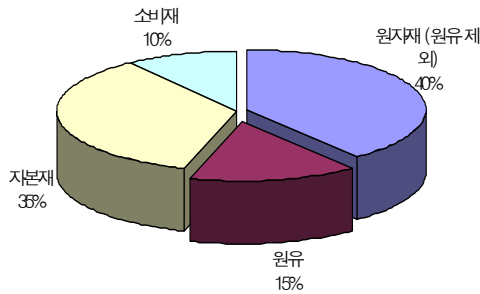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- 에너지·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 : 국제 유가(두바이유 현물 기준)는 8월 11일 현재 배럴당 56.7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며,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, 이들 자원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입단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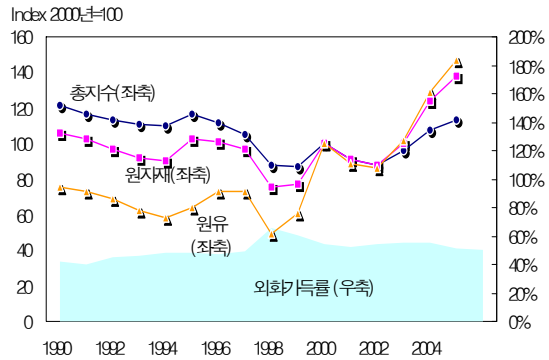
- 2005년 1~7월의 기간 동안 전체 수입액 중 원자재(원유제외)가 40%, 원유가 15%를 차지하는 가운데, 원자재의 수입단가지수는 2002년에서 2005년 1/4분기까지 57.7% 상승하였으며 원유는 동기간 70.3% 상승

- 한편 수출품의 외화가득률<sup>1)</sup>은 2000년 54.2%에서 2005년 2/4분기 현재 50.5%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원자재 수입액을 고려하면 수출품의 외화가득 능력은 담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됨

< 품목별 수입액 비중 >



< 수입단가지수 추이 >



자료 : 산업자원부

자료 : 한국은행

주 : 1) 잠정치

2) 2005년 1월~7월 20일 누적 기준

- 수입 소비재의 고급화 : 2000년 들어 소비의 고급화 추세로 소비재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<sup>2)</sup>

- 수입단가지수는 순수한 가격변동 이외에 품질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이나 동일품목 내에서의 고가품·저가품의 구성 차이로 인한 단가 변동을 반영
- 승용차 등 고가제품이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입단가지수는 2001년 9·11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93.6에서 2005년 1/4분기 현재 116으로 23.9% 상승

< 소비재 수입단가 지수 추이 >

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 1/4
소비재	100	95	96	100.6	100.9	111.3
내구소비재	100	93.6	98.7	108.1	112.3	116
비내구소비재	100	92.9	90.5	81.9	83	92.8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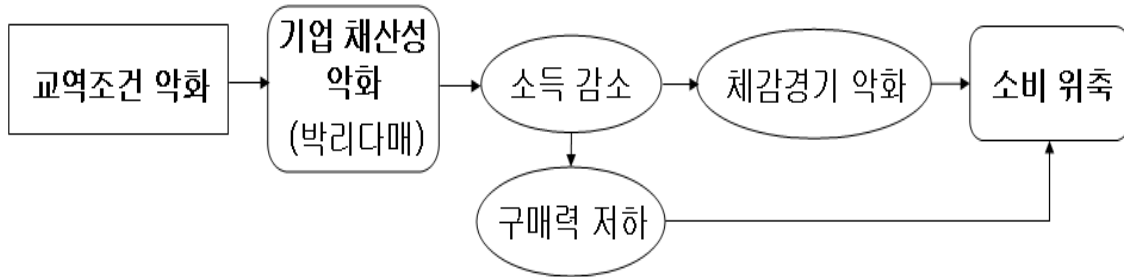
1) 외화가득률은 상품 수출액에서 원자재 수입액을 뺀 금액을 상품수출액으로 나눈 것으로, 수출액의 외화가득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

2) 한국은행, 「순상품교역조건 변동요인 분석」, 2005.2.

### 3. 교역 조건 악화의 문제점

○ 교역 조건 악화는 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를 통해 소비위축으로 이어짐

< 교역조건 악화의 문제점 >



○ (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) 수출 물량에 의존하는 박리다매(薄利多賣)형 무역구조 심화

- 수출액 증가 요인 : 수출액 증가는 물량요인, 즉 수출량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2004년 까지 가격요인은 오히려 수출증가액의 감소요인으로 작용
  - 1991~1999년 순수출 증가액<sup>3)</sup>은 물량요인에서 1,438억 달러 증가시켰으나 가격요인에서는 오히려 651달러가 감소
  - 2000~2005년 5월 순수출 증가액은 물량요인에서 1,259억 달러 증가시켰으나 가격요인에서 45억 달러가 감소
  - 최근 2005년 1~5월까지 가격요인의 기여도가 음에서 양으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물량요인의 1/3에도 못 미치는 26억 달러에 그친 반면 물량 증가에 의한 수출액 증가는 86억 달러를 기록
- 수입액 증가요인 : 수입액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물량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2005년 들어 가격요인에 의한 증가로 바뀌고 있음
  - 1991~1999년 순수입 증가액<sup>4)</sup>은 물량요인에서 855억 달러 증가효과를 기록했으나 가격요인에서 오히려 356억 달러 감소효과가 발생

3) 1991~1999년간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분의 합

4) 1991~1999년 전년대비 수입액 증가분의 합

- 2000~2005년 5월 순수입 증가액은 물량요인에서 677억 달러, 가격요인에서 503억 달러를 기록하여 가격요인이 물량요인과 거의 대등
  - 최근 2005년 1~5월까지 가격요인의 기여도가 103억 달러로 물량요인의 30억 달러에 세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가격요인이 수입액 증가를 주도
- 박리다매 무역구조 :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은 싼값에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박리다매(薄利多賣)식 무역구조 심화

< 수출·수입액 변동내역 >

단위 : 억 달러

	수출			수입		
	순수출 증가액	물량요인	가격요인	순수입증가액	물량요인	가격요인
'91~'99	787	1,438	△651	499	855	△356
'00~'05.5	1,214	1,259	△45	1,180	677	503
'05.1~5	112	86	26	133	30	103

자료 : 한국은행 자료 재구성

- 주 : 1) 통관기준 (수출은 FOB, 수입은 CIF 기준)
- 2) 순수출(입) 증가액은 전년대비 증가(감소)액의 합
- 3) 순수출(입) 증가액은 물량요인과 가격요인의 합이 됨
- 4) △표시는 음수
- 5)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되었음

○ (소비 위축)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수출 수익성 저하는 국내총소득(GDI : Gross Domestic Income)<sup>5)</sup>을 감소시켜 구매력 저하와 체감경기 악화,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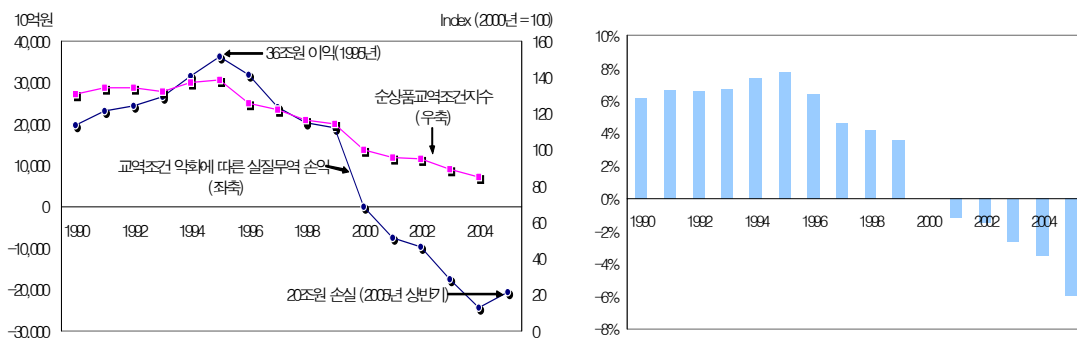
- 소득 감소 :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은 국내총소득(GDI)을 감소시켜 구매력 저하의 원인이 됨
  -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국내총생산(GDP)과 국내총소득(GDI)의 차이로 정의
  - 2000년 교역조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005년에 상

5) 국내총소득(GDI)은 국민총생산(GDP)에서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손익을 더한 것으로,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임. 이상 한국은행 『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』 p.202.

반기에만 20조 원을 비롯하여,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총 79조 원이 소멸됨

- 실질 무역손익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장 높았던 1995년 36조 원의 이익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자 동반 하락, 2001년부터는 손실로 반전
- 이러한 소득 감소분은 2005년 상반기 현재 GDP의 6%에 달해 2000년 이후 가장 확대된 상황임
- 교역조건이 200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손실로 인하여 국내로 들어와야 할 돈이 매년 수십조 원씩 사라짐으로써 결국 구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

<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> < GDP 대비 실질 무역 손익 비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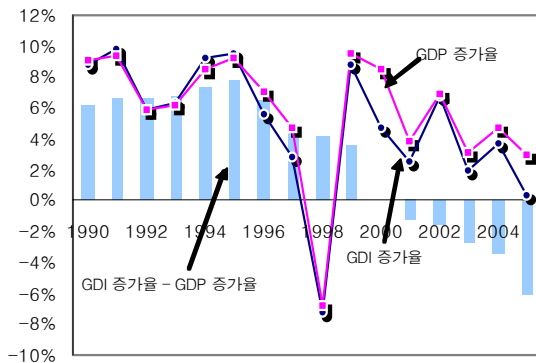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주 :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은 2000년의 교역조건을 기준으로 한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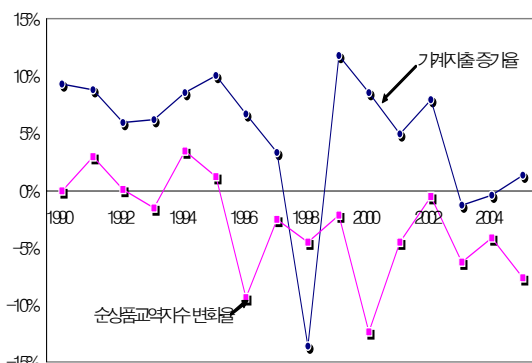
- **체감경기 악화** : 국민총소득(GDI) 감소는 국내총생산(GDP)과의 괴리로 이어져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
  - 지표경기를 나타내는 GDP 증가율(경제성장률)과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증가율(GDI 증가율)의 차이가 2005년 상반기 들어 2.6%p 까지 확대
  - 2005년 상반기 GDP 증가율은 3.0%를 기록하였으나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이 포함된 국민총소득(GDI)은 0.4% 성장에 그쳤음
- **소비 위축** : 교역조건 악화는 결국 구매력 저하와 체감경기를 악화를 유발하여 소비를 위축시킴

- 교역조건이 좋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가계지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996년 이후 2004년까지 9년 연속 하락하면서 가계지출 증가세 또한 감소
-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평균 134를 기록했던 1990~1995년에는 가계지출이 연평균 6.5% 증가했으나, 동지수가 평균 104.8을 기록했던 1996~2004년에는 가계지출이 연평균 2.1% 증가에 그쳤음
-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가계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
< GDP와 GDI 증가율 추이 및 그 차이 >    < 가계지출과 순상품교역지수 >



자료 : 통계청



자료 : 한국은행

주 : 가계지출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

< 참고 > 교역 조건 악화와 외환위기

- 1996년 이후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계지출 부진의 원인을 1997년 11월 발생한 외환위기에서 찾을 수 있으나, 교역조건 악화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가계지출 부진은 교역조건 악화와 맞닿아 있음
  -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는 1995년 161.8에서 1996년 140.5, 그리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127.9로 2년 사이에 20.9% 하락
  - 반면 1995년 9.2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효과에 의해 수입량이 급증하고 수입단가지수는 110을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적자액은 1995년에 109억 달러, 1996년에 209억 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
- 이러한 무역적자는 원화가치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

#### 4. 정책 과제

○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각화,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교역 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함

-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: 수출단가지수<sup>6)</sup>가 2005년 5월 현재 92.4로 5년 전인 2000년의 100보다도 낮아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

·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GDP의 2.5%로 중국(1.2%)보다는 높으나 일본(3.07%)이나 미국(2.7%)에 비하면 낮으며 그 액수로 비교하면 미국의 5%, 일본의 11%에 불과

· 박리다매(薄利多賣) 무역구조가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

- 수출 품목의 다각화 :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 심화로 해당 품목의 시장여건에 의해 수출단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수출 품목의 다각화가 필요

· 2005년 들어 7월 20일까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·전자 부문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37%에 달하고, 국제유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화학공업도 전체 수출액의 16%를 차지 (잠정치)

· 취약한 기초소재 산업 및 기계 산업의 육성, 문화산업 양산을 통해 산업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함

-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: 省에너지 산업 육성, 신·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

·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단위<sup>7)</sup>는 0.36으로 일본(0.11)보다 3.4배 높으며, 대만(0.29), 싱가포르(0.26), 미국(0.23)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

6) 수출단가지수는 품질 변화나 동일품목 내에서 고저가품의 구성 변동 효과를 반영하므로 이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

7) 에너지원 단위는 실질 GDP 1,000 달러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TOE로 환산한 것(TOE ; 각종 에너지원을 원유 1톤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)



< 부록 > 교역 조건 개선의 소비 활성화 효과

○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·재정확대 정책과 함께 교역조건 개선책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- 감세·재정확대 정책은 효과가 빠를 수는 있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, 구축효과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
  - 경기 진작과 복지 수요 충당 등을 위한 적자성 채무는 2002년 42.5조 원에서 2004년 77.6조 원으로 35.1조 원 (82.6% 증가)이 늘어나, 총 국가 채무(동기간 52.0% 증가) 보다 더 빠르게 증가
-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자산효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부동산 거품 생성으로 자금 흐름의 왜곡을 초래
  - 430조 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<sup>8)</sup>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2000~2004년 사이에 70.2% 상승하여 동기간 GDP 증가율 19.8%보다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, 올해 1~7월 사이에 7.7% 추가 상승
  - 반면 2000~2004년 사이 설비투자는 0.3% 증가에 그쳤음
- 교역조건 개선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대는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,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므로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 못하지만, 구매력을 높이고 체감경기를 향상시키는 만큼 민간부문의 지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음

< 소비 활성화 정책 비교 >

	장점	단점
감세·재정 확대	효과가 빠름	재정건전성 악화 구축효과 발생
부동산 경기 활성화	효과가 빠름	부동산가격 거품으로 자본흐름 왜곡
교역조건 개선	부작용 없이 구매력 향상 및 체감 경기 개선 가능	효과가 늦음

이 상 우 선임연구원 (3669-4014, leesw@hri.co.kr)

8) 2005년 7월 현재 만기 6개월 미만의 요구불예금,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, 양도성예금증서, 매출어음, 환매조건부채권매도, MMF 수익증권, 단기채권형 수익증권, 어음관리계좌, 발행어음, 정기예금의 합